

PA-68

중부내륙평야지에서 벼 이앙시기에 따른 출수생태형별 수량 및 품질조운상^{1*}, 이지우¹, 김성용¹, 송운호¹, 정재환¹, 이해리¹, 고재영¹, 박정화²¹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83 강원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작물연구과²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서론]**

최근 벼 생육은 기후변화의 영향인 고온등숙에 의한 수량 변이 및 품질 저하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부평야지에서 생태형별 재배는 조생종 비율이 절대적이어서 등숙기간 고온등숙 회피를 통한 수량성 및 품질이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고온등숙 회피는 이앙시기 조절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벼 재배안전출수한계기와 품질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앙시기에 따른 수량과 품질을 비교하여 중부내륙평야지에서 알맞은 이앙적기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및 방법]

중부내륙평야지인 춘천, 철원, 강릉 등 3지역에서 수행하였다. 시험품종은 생태형에 따라 조생종 오대, 오륜, 중생종 삼광1호, 청품, 중만생종 삼광, 진수미 품종을 사용하였다. 종자소독은 10분간 냉수온탕침지한 후 이프코나졸 약제소독하여 마른종자 기준 130g을 파종하였다. 각 지역별 이앙시기는 춘천은 5월 10일부터 10일간격으로 6월 20일까지 5회 강릉과 철원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4회 기계이앙하였다. 분석내용은 수량구성요소 및 현미완전미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엔 SAS enterprise 7.1를 활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지역별 수량 및 품질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 및 생태형에서 이앙기가 지연될수록 수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춘천에선 조생종 및 중생종은 5월 30일 이앙에서 수량이 가장 많았고 중만생종은 5월 20일 이앙에 수량이 많았다. 강릉에선 생태형 모두 5월 20일 이앙에서 수량이 가장 많았고, 철원에선 조생종은 5월 20일, 중생종, 중만생종은 5월 10일 이앙에서 최대 수량성을 보여주었다. 현미완전미율은 춘천에서 6월 10일 이후 이앙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강릉은 5월 30일 이앙 이후 감소되었다. 철원은 5월 30일 이후 이앙에서 감소되었고 중만생종은 6월 10일 이앙시 현미완전미율이 59.6%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중부평야지에서 생태형에 따른 이앙한계기 설정시 품질을 기초로 새로이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2018년 1년 재배 결과로 현재 2년차 연구가 수행중임으로 결과가 완료된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사업번호:PJ01384804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82-33-248-6053, E-mail. choyouns@korea.kr